



5면

전주 도서관·박물관·미술관 한 번에

2022년 7월 29일 금요일 (음 7월 1일) 제306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전북 농촌유학 지방소멸 대응책”

김관영 지사, 완주 농촌유학센터 찾아 해결책 모색  
향후 서울교육청·전북교육청 등과 협약 체결키로  
고산 미소한우 육가공센터 찾아 애로사항 청취도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민선8기 도정의 핵심 전략으로 추진 중인 ‘활력 넘치는 농산어촌 조성’을 위한 현장 행정에 나섰다 28일 밝혔다.

김관영 도지사는 완주군 운주 농촌유학센터와 고산미소한우 육가공센터를 차례로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지사는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고 마을 주민 등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문제 해결을 모색했다.

(관련기사 10면) 먼저, 김 지사는 국내 최초 국비로 건립된 완주군 운주 농촌유학센터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농촌유학생 유치활동 강화, 가족체류형 농촌유학 확대를 위한 거주시설 확충, 가족체류형 농촌유학 확대를 위한 거주시설 확충, 농촌유학 협력학교 프로그램 지원 확대 등 농촌유학 활성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그는 “전북은 농촌유학의 전국적 모델로 정립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이는 교육혁신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지방 소멸에 대한 가장 실질적인 대책이기도 하다.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과 더불어, 농촌유학과 같은 매력적인 프로그램으로 전국의 학부모들이 전북에 오고 싶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완주한우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고산미소한우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 성과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완주한우협동조합(대표 국원호)은 지난해 기준 조합원 250명, 매출액 247억 원을 달성한 전라북도 우수 6차 인증 경영체로 수익금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등 타의 귀감이 되는 사업장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농촌 및 복합산업 내실화를 위한 판로개척 및 공동마케팅,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문제 등 농가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김관영 지사는 “전라북도는 농생명 산업 수도답게 경쟁력 있는 농업을 강화해 활력 넘치는 농산어촌을 조성할 계획이다”며, “앞으로 농촌유학과 농식품 6차 산업의 혁신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농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관영 지사는 농촌유학의 선도지역인 전북의 강점이 그동안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고 앞으로 서울교육청·전북교육청과 농촌유학 업무협약 등으로 농촌유학의 새로운 발전전략을 가다듬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완주=이종복 기자

## ‘탱구알버섯’ 9년 연속 발견

남원시 산내면에서 세계적으로 희귀하다고 알려진 ‘탱구알 버섯’이 9년 연속 발견됐다. 버섯을 발견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발견된 2개의 탱구알 버섯은 지름이 15~20㎝ 정도 되는 백색의 공 모양이며 표면이 매끈하고 말랑한 촉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탱구알버섯은 각종 염증 발생을 억제하는 등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관영 도지사(가운데)가 28일 국내 최초 국비로 건립된 완주군 소재 운주 농촌 유학센터를 방문해 현장 관계자와 함께 농촌 유학생 유치활동 강화 등 농촌 유학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혁신학교 성과 확산… 미래학교로 전환”

서거석 교육감, 교육현안 설명 시간 가져  
“군산 역세권 공립유치원, 예정대로 설립”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과 관련  
“유아 무상교육 실현… 차별 없애기 위한 것”



서거석 교육감은 28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28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혁신학교 관련 사안을 비롯해 공립유치원 신설,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등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군산 역세권 공립유치원과 관련하여는 예정대로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행정 절차상의 아쉬움을 토로하며, 현재 도의회 심의가 부결돼 있는 상태라고 했다. 앞으로 도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재상정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 지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는 ‘유아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부모 부담금

이 전혀 없는 공립유치원과 달리, 사립유치원은 학부모 부담금이 있어 이같은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점이란 걸 강조했다.

서 교육감은 “똑같이 전북도민의 자녀인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학부모만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구조는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은 공·사립유치원 간 차별을 없애고 균형잡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확보와 관련하여는 이미 2020년 3월부터 도내 모든 사립유치원이 국가회계시스템인 K-에듀파인을 사용하고 있고 일정 기간마다 재무감사를 받고 있어 학부모 부

졌다고 밝혔다. 특히, 혁신학교에 대해서도 혁신학교 지우기가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혁신학교는 미래교육의 한 유형으로, 그대로 이어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기본 취지와 정신에 공감하고, 그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말해왔다”면서 “혁신학교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학교와 교사들은 충분히 격려하고 배려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혁신학교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성과는 확산시키고, 미흡한 점은 보완할 것”이라며, 평가를 거친 후 미래학교의 한 유형으로 전환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85곳의 혁신학교가 있다. 혁신학교의 신규 공모는 미래학교의 한 유형으로, 앞으로도 신청을 받겠다. 현재 공모하려는 학교가 5곳 정도 된다고 했다.

/장은성기자

손 씻기 · 마스크 착용... 개인방역 수칙 준수해주세요.

토 · 일요일 신문 쉽니다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